

복 잡한 도심 속에서 포교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다 보면, 문득 스스로 부처님의 말씀을 몸같이 실행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 그래서 대승불교의 교리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는 티베트 불교 중 동티베트 지역의 사찰을 찾아 떠났다. 우리는 일단 청두(成都)로 날아간 후, 기차로 란조우(蘭州)에 도착해서 샤허(夏河), 랑무스(朗木寺), 씨다(色達)를 중심으로 순례를 하면서 청두로 내려오는 일정을 짰다.

3월 23일 청두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1만 여 채 토굴...극락정토 온 듯

지상 최고(最高) 최대의 오명불학원

씨다는 해발 3900미터의 고산에 위치한 자그마한 도시로 지도상으로 봐도 씨다에서 길이 짧고 마는 오지 중의 오지다. 이러한 오지에 많은 니마파 스님들이 모여서 수행을 한다고 한다. 니마파는 티베트 불교 4대 종파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종파로서 파드마삼바바가 티베트에 불교를 정착시키면서 생긴 종파인데, 티베트 불교 종파 중 가장 밀교적인 성격을 보존해왔다고 한다. 이곳이 우리가 순례할 첫 번째 지역이다.

씨다에 가기 위해서는 마얼강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5시간을 더 올라가야 한다. 버스가 중간에 휴식겸 식사를 위해 한번 정차를 하여 간단한 식사를 하고 주위를 둘러보는데, 장족 두 명이 오체투지를 하며 삼보일배를 하며 오는 것이 보인다. 중간에 그들이 휴식하는 동안에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니 씨다에 갔다가 다시 한

달에 걸쳐 70km거리를 오는 중이었다. 이곳에서 30km 떨어진 곳에 그들의 집이 있는데, 출발할 때부터 오체투지를 해왔다 하니, 장장 170km를 오체투지로 3보1배를 해온 것이다! 실로 이들의 불심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심해와 같다 할 수 있으니 새삼 존경심이 우러나움을 억제할 수가 없었다.

버스가 다시 출발하여 두어 시간을 지나서 드디어 씨다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려 발을 내딛는 순간 숨이 벅차오른다. 빠르게 움직이려 하여도 마치 시간이 느려진 듯이 움직임이 더디다.

연통사에서 만난 조선희 스님은 몽골에서 교사활동을 하다 티베트 불교에 감화되어 1998년 57세의 나이에 뒤늦게 출가한 분으로 법명도 '추양취마'로 티베트식으로 지은 분이다. 땡차(우리나라의 다마스)와 비슷한 차량을 타고 또 다시 산으로 굽이굽이 오르는데, 이

같은 포장이 되어있지 않아 내내 달궂달궂 몸이 위로 솟구치고 난리다. 이쯤 되고 나니 서서히 고산증세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 호흡은 물론이고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한다. 하늘길 산꼭대기에 위치한 연통사에 도달해 차에서 내리니 일행인 오중철씨는 두통에 몸살기 운으로 몸져눕고 말았다.

2평 남짓한 추양취마 스님의 토굴에는 자그마한 부엌과 파드마삼바바(연화생보살-연꽃위에서 태어난 자)를 중심으로 자그마하게 차린 불전이 전부이며 침대도 바로 불전 앞에 좁은 공간에 놓여 있었다. 니마파 스님들은 이렇게 자그마한 토굴에서 개별적으로 수행과 생활을 하는데, 수행은 경전 암송과 명상을 통해서 하고 정기적으로 큰스님에게 점검을 받는다 한다. 니마파 스님들은 주불로 모시는 파드마삼바바는 8세기 경 아직 티베트지역에 불교가 뿌리를 내리기 전에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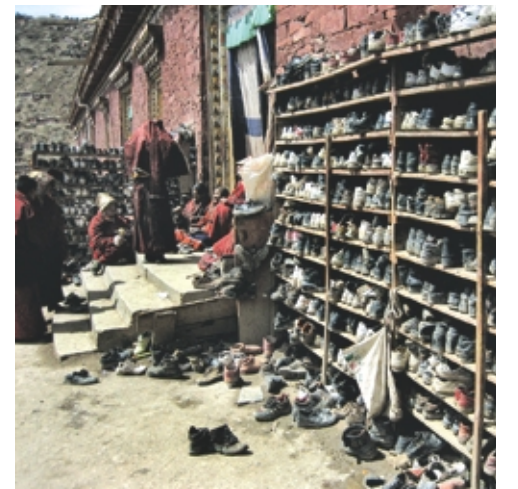
도 쪽에서 건너와 불교를 정착시킨 분으로 아마타불의 화신으로 추앙받는 분이다. 이때 들어온 불교의 성격은 탄트라적 요가, 명상, 수행법을 강조했고, 현재 니마파 스님들은 그때의 수행방식을 가장 잘 따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곳에선 특이하게도 연통사 주지스님이 출가 후에 결혼을 했는데, 이는 깨달은 자들 사이의 결속이라 하여 내외 스님이 함께 존경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은 니마파의 탄트라적 성격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니마파 스님이라고 해서 모든 이들이 다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니다. 탄트라 수행에서 높은 경지에 이른 스님 중에 계시를 받아 불법의 결혼을 한다. 이는 수행을 더 높은 과정으로 이끈다는 것이다.

밤이 찾아오자 추위가 시작됐다. 추양취마 스님은 연불 삼매경에 빠져 추위를 잊고 연불에 여념이 없다. 문득 나의 수행이 한없이 부족함을 느끼게 된다. 바쁜



장장 170 km를 오체투지로 3보 1배 이들의 불심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심해와 같다

1만여 채의 토굴로 이루어진 오명불학원.



오명불학원 법당 신발장에 1천개가 넘는 신발이 가득하다.

"우리는 서로 간에 전혀 갈등이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한곳을 향해 정진하고 있으니깐요. 길이 다르다 해서 목적지가 틀린 것은 아니잖습니까. 문제는 지금 같은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서로 다른 목적지를 향한다는 것이겠죠."

포교활동에 있어 하루하루를 보낸다는 핑계로 정작 끊임없이 정진해야 할 부처님의 길을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날 밤은 추위와 변민에 쌓여 뒤척이다가 새벽녘에 겨우 잠들 수 있었다.

아침이 되어 예불에 동참하기 위해 밖을 나와 보니 온통 새하얗게 눈이 쌓였다. 일행인 오 선생은 간밤에 추위에 시달려 몸이 회복이 안 되었지만 몸을 추슬러 예불을 보고 다시 씨다에 있는 오명(五明)불학원을 방문할 준비를 하였다.

오명불학원 입구에서는 신분증 검문을 하고 있었다. 동티베트 지역은 아직도 티베트 독립의 열망이 강한 곳이다. 스님들이 하나하나 모여들어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뿐만 아니라 여행객들의 입소문으로 외국인들의 출입이 점차 빈번해지고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99년경부터 중국정부가 출입 통제를 강화

일불선교종 재건을 위한 구종 선언문

삼보에 귀의하십시오

우리 일불선교종 종도들은 작금의 중단사태를 보고 더 이상 수수방관만 할 수 없어 일불선교종 재건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종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 다 음 -

첫째, 일불선교종 종도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중앙총회를 해산하여 종헌 중법의 일부기능을 정지시킨 채 약5년간 비상중단체제로 종단을 파행적으로 운영하여 온 것은 종도들을 우롱한 아주 잘못된 처사입니다.

둘째, 일불종자 원적(圓寂) 당시에 물의를 일으켜 문제가 아주 많았던 이 법우스님을 일불선원 주지는 물론 일불선교종 총무원장으로 발탁하여 종무행정 최고책임을 맡기신 것은 열반하신 일불종자에게 우리 일불종도와 일불문도 전체가 다 함께 죄를 짓는 것이었기에 봉암 종정께서는 이법우 스님을 즉각 해임조치하시고 중앙총회의원 선거를 맡을 입시 총무원장서리를 바로 임명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하루속히 중앙총회 위원 총선거를 실시하여 신임 총무원장 등을 새로 선출하고 전체 종무기구를 정상화하기 바랍니다.

넷째, 일불선교종의 입종과 탈종은 전적으로 각 사암의 자유이며 고유권한이고, 종헌중법에 명시된 각 사암의 강권주 관할도 절대로 제약을 받을 수 없고, 또 각개 사암의 재산권도 중단에서 침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그런데도 종헌중법을 위배하여 일불선교종을 기히 탈종한 모은사를 탈취코져 기도한 것은 전적으로 중단 현 집행부의 잘못이므로 중단에서 파견한 모은사 주지와 부주지를 즉각 소환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사태의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공개 사과를 봉암 종정스님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봉암 종정스님도 타 중단 소속 승려가 우리중단 운영을 좌지우지하여 종단이 파행적으로 잘못 운영되어 온데 대하여 그 책임을 통감하시고 새로 선출된 중앙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51(2007년) 5월 15일

- 현 원 로 의 원 청 곡
- 현 원 로 의 원 등 명
- 현 중정사서실장 현 각
- 현 총무원부원장 혜 관
- 현 총무원기획실장 승 암
- 현 포 교 부 장 덕 암
- 현 경남총무원장 일 선

- 전 총 무 원 장 법 철
- 전 사 정 원 장 일 암
- 전 교 육 원 장 법 운
- 전 총무원부원장 무 정 원
- 전 포 교 원 장 법 원
- 전 규 정 국 장 장 호
- 전 교 무 부 장 지 연
- 전 중앙총회의원 상 목
- 전 총무원기획실장 진 소
- 전 사 정 부 장 청 운
- 전 중정상임고문 대 장

외 종도일동